

불법 임대·매매 판치는 무안농산물시장

1991년 착공 후 관리 안해 기능 상실... 郡, 알고도 묵인

무안군 소유의 무안농산물시장 사용자들이 군수의 승인 없이 임대·임대하거나 불법증축 및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전국 최대 양파 마늘 주산지에 경매 기능을 할 수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8억2800만원(도비 2억5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민자 3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무안을 성남리 부지 6949㎡에 연면적 4344.97㎡의 건물 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가 개설할 수 있는 데다 도매시장 개설규

율 시 행정구역 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림부는 공사 추진 전부터 3차례에 걸친 무안군의 승인요청을 거부했다. 사실상 군 단위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무안군은 이 같은 승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 사무실과 작업장 등 공동시설과 민자투자자인 무안농수산물유통(주)가 청과물 취급점포, 일반점포 등을 완공했다.

군은 이후 민자시설건물 기부채납 조건으로 1994년부터~2006년까지 12년간 무안농산물유통(주)이 무상사용하도록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군은 자신들이 시설 공사한 작업장을 용도 변경하고 군비 6억원을 추가 지원해주기도 했다.

이후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이 제

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난 1997년 무상사용권을 돌려받고 2001년에는 민자투자자인 무안농산물유통(주) 역시 해산했으나 현재 이 시장은 음식점, pc방, 횡집,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 군 소유 재산이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군 농산물 시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관리 또는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매도·신축·증축·철거·개설 등 목적과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수시로 계약 목적과 시설물의 재산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유통회사가



지난 1991년 관계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조성된 무안군 농산물도매시장.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물론 불법 증축, 매매·임대되고 있으나 정작 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에 부도로 인해 보증금을 못 받은 상인들이 있다"며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찾고 있으며 현재 시장기능 용도가 상실돼 재개발용역

을 실시 후 매각 및 공원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휴게소 없는 목포~광양 고속도로

장흥 호계리 일원 2009년 추진

4년간 지지부진... 이용객 불편

연장 106km에 이르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에 휴게소 등 편의시설이 없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9년 초 중간지점인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일원에 양방향 휴게소를 짓기로 한 뒤 4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 2월 2만7740㎡의 부지에 207억원을 들여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에 양방향 통합형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한 뒤 건축공사비 80억원만 확보하고 이후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은 물론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목포~광양 고속도로는 지난해 4월 말 여수 엑스포 개장을 앞두고 개통, 현재 1일 평균 2만5000여대의 교통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식할 수 있는 휴게소가 편도 노선에만 설치돼 있는 상태다.

알뜰주유소나 편의점 형태의 휴게소만 있어 목포~부산 방면으로 가는 이용객들은 경남 하동에서 '섬진강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주말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음식점 등 각종 근린시설 허가제한 조건에 묶여 식당영업 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에 휴게소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관련 도로공사 측은 "해당 지자체 및 장흥군에 올해 안으로 보완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오는 2015년 휴게소를 준공하겠다"고 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교육복지 학교 담당자

나주교육청, 워크숍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기평)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나주·영광·영암·해남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담당자 및 나주지역 위클래스 상담사 등 25명을 대상으로 전문 사례관리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방안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 사례관리 이론 및 실천'과 '전문사례관리의 실제'라는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의가 있었다.

대상 학생을 응호하는 기술적 방법 뿐 아니라 대상 학생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가 강의의 주내용이었다.

신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와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례관리 대상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정남진 물축제 오세요"

장흥군 탐진강변 일대에 해바라기 등 여름꽃들이 최근 만개했다. 장흥군은 오는 26일부터 8월1일까지 개최되는 '2013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앞두고 탐진강변에 해바라기 등 12종, 5만 본의 꽃동산을 조성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나주시의회, 기능 상실 '반쪽 의회'

미래산단 승인 갈등... 운영위 7명중 5명 사퇴 파행

나주시의회 165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 현장 방문 등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으나 운영위원회 7명 중 5명이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16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나주미래일

반산단단지 승인 문제로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간 갈등이 촉발되면서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는 165회 정례회 전까지 제출된 3명의 사퇴서를 반려하거나 수리해 운영위를 정상화시켜야 했지만

운영위원 3명이 없는 상태에서 정례회를 열었다. 그러나 추가로 2명의 운영위원회에서 사퇴하면서 사실상 운영위원회 기능이 상실됐다.

이번 165회 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수정과 함께 행정복지와 경제건설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제때 로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김종은 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과반수의원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진행과 사무감사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모(53)씨는 "수천여의 예산을 감독해야 할 의회가 이렇게 반쪽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하루빨리 의회권한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의장을 포함해 9명이 무소속이고 민주당 4명, 통합진보당 1명이지만 민주당 3명과 통합진보당 1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해남 미소' 직영 2년만에 매출 2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연 15억

해남군 직영으로 전환된 '해남 미소'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지역 온라인 유통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남 농수특산물의 독자적 유통망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남미소'는 군 직영 2년 만에 연간 매출액 15억여원을 기록하며 직영 전에 비해 2배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회원수도 1만여 명이 늘었다.

군은 전국 최초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지역 농수산물의 독자적 유통채널 확보를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해남농업블루오션 프로젝트 '해남미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해남미

소를 직영체제로 전환해 온라인 쇼핑몰을 직접 운영, 고품질 상품 공급과 차별화된 고객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다. 실제 고객관리팀을 별도 운영해 지속적인 상품선명도를 결정한 소식지 발행과 구매고객에 대한 감사문 발송, 각종 이벤트 시 SNS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영 초반 7억 5700만원의 매출액이 2년 만에 14억 8600만원까지 증가했고, 47개의 입점 업체 수도 85개소까지 늘었다.

또 쌀 판매가 중심이었던 품목도 다변화돼 과채류와 가공식품 등이 대폭 확대되면서 현재는 187개 품목, 519종까지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함평성심병원

혈액투석실 설치

함평성심병원이 최근 혈액투석실을 갖추고 진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투석을 받기 위해 외지로 나가는 등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성이 입증된 FMC사의 최신의 온라인 고효율투석기를 설치한 함평

성심병원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장기간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함평성심병원 정대호 원장은 "투석치료를 가깝고 편안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오랜기간 신장실 운영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배치했다"며 "전문의가 직접 환자들을 진료해 지역에서 고생하는 신부전증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3인3색 색깔이 살아있는



TV조선 뉴스쇼

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매주 월~금 밤 9시 4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